「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39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2. Vol. 12, No.3, pp.099~120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2.12.3.005

논문접수일 : 2022년 08월 10일
최종수정일 : 2022년 09월 25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27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응웬 티 반안 (대구대학교)* · **이윤주** (대구대학교)** · **최웅용** (대구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를 알아보고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 4년제 D대학교와 경남지역의 4년제 K대학교 전체학년(1~4학년) 남녀 재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244부의 자료를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으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개입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조절효과.

---

* 본 논문은 2022학년도 응웬 티 반안의 석사논문을 수정·보완 및 요약한 것임.

* 제1저자,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문학석사; E-mail: vananhk47h1@gmail.com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상담학과 철학박사; E-mail: angel7989@hanmail.net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E-mail: choiwy@daegu.ac.kr; Tel: 053-850-6326; Fax: 053-850-6329.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영위해 나가며, 행복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보람을 가지는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다(김춘경 · 이수연 · 최웅용, 2006).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현명희, 2021).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된다(김계현, 2006).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해 확인하고, 사회적 변화 및 직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과정이 필요하다(소연희, 2011). 또한,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건들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진로를 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분석,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 직무능력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의 향상을 통해 진로 발달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은 만족스러운 성인기의 생활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졸업 이후 직업과 장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lustein, 1989). 이렇듯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전 생애 동안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인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진로발달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장은영, 201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장래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합격 위주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진로 탐색 및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 진학 후 진로선택과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과업이 과중해지고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이주연 · 민윤희 · 장성화, 2019).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른 노동시장 및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 세계로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로준비활동을 요구받고 있다(조영아 · 정지은, 2017). 이는 사회진입을 앞둔 후기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양은희, 2017),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회 · 환경적 변화로 인해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들은 더 큰 부담감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으며(현명희, 2021), 이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로준비행동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진로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은 Mahler 등(1975)이 분리-개별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Mahler et al., 1975). 분리-개별화는 부모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자각하고, 자율성

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진출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독립은 향후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감정조절에 관한 자율성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발달과업이며(심지연, 2013), 청년기 이후 사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허혜경 · 김혜수, 2015). 따라서 대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부모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 적응과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진로정체감(박완성, 2002b), 진로결정수준(김순정, 2000; 김은진, 2001; 박수길, 2001; 권용호, 2002; 박현주,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고향자 · 강혜원, 2003), 진로태도성숙(이기학 등, 2004), 진로탐색행동(Scott & Church, 2001), 진로준비행동(박완성; 2002a; 이주연 등, 2019; 이현진, 2021) 등 진로발달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들은 심리적 독립이 다양한 진로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Ferry et al., 2000) 이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정근, 2012; 류진숙, 2012). 즉 심리적 독립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계획된 우연기술(Planned Happenstance Skills)의 학습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속도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진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 하나의 목표 설정 후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대안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조한익, 2009). 물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의 목표만 고집하지 말고 대안을 설정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설정한 목표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Snyder, 2004). 이러한 대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계획된 우연기술이라 할 수 있다. Michell 등(1999)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계획된 우연 이론을 주장하였다. 계획된 우연 이론에 따르면,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발달 과정에서 우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은 현실 속 다양한 변화를 통해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연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개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Krumblotz, 2009). 이처럼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연 학습 이론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개방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적극적 자세이자 행동 양식으로(이향림, 2020),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

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최민슬, 2020). 이는 진로발달을 위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즉 우연을 인식하고, 기회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술을 잘 발달시킨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 사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민슬, 2020). 지금까지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손은령, 2009; 백성호 · 김현숙, 2017), 최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서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적 변인인 진로준비행동(차영은 · 김시내 · 강재연, 2015; 송영희, 2017; 최주영, 2020; 현명희, 2021),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남근 · 정미예, 2013; 차영은 · 김시내 · 강재연, 2015). 이처럼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 환경적 요인으로 각각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내적 요인인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 요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따라 달라짐을 검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담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고,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며 진로준비행동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학생 대상으로 진로 행동에 부모가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은 예전부터 진로선택이나 진로발달이론에서 다루어져 왔었다(이현진, 2021).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적응과 심리적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자아정체감, 직업적 정체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양진희, 2017).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자기신뢰가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부모와 지지관계, 자율적 의사결정 순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이현진, 2021). 또한,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갈등적, 기능적, 태도적, 심리적 독립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고(이주연 등, 2019),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은 정보수집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박완성, 2002a). 주은지(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청소년의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시기가 성숙한 대인관계, 가치관 확립, 사회적 책임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의 성숙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주은지, 2018). 정은희(1992)와 정원근(2013)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적이고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박완성(2002a)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대학생들은 높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직업탐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연구(이득연 · 홍경자, 2004)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김수임 · 김창대; 2009),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자율적 의사결정,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유사연구(김은진 · 천성문, 2001; 김수리, 2005; 김현희, 2011; 위선희, 2013; 허강석, 2017)도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심리적 독립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심리적 독립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2.2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계획된 우연학습이론에서는 우연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기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행동의 5가지 기술에 대해 언급하였다(Mitchell et al., 1999). 이러한 계획된 우연학습기술은 개인적 특성으로 계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연한 사건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Mitchell & Krumboltz, 1996) 계획된 우연 학습기술 수준이 낮으면 다양한 변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한 반면에, 계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Krumboltz, 2009). 즉, 계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를 준비하고 후에 직업세계에서도 잘 적응하여 효과적인 진로발달을 해낼 수 있다(이동혁 · 황윤미 · 정지희,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명희, 2021). 또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학습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송영희, 2017),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학습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주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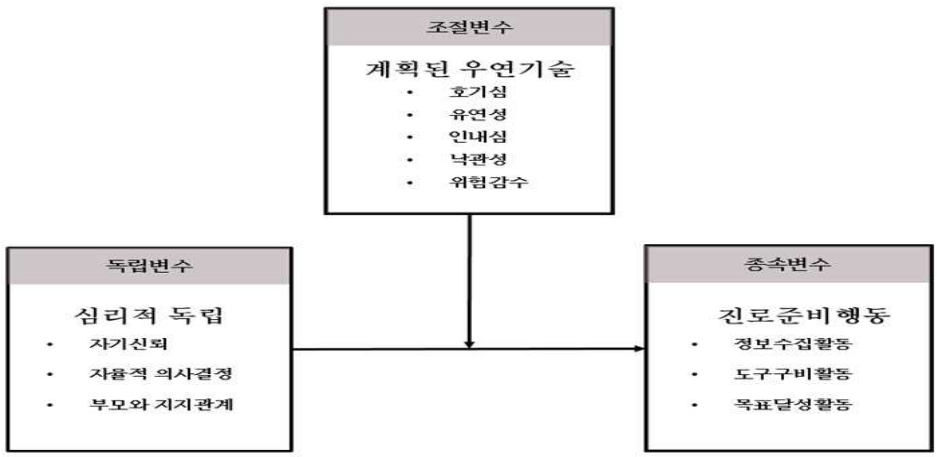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계획된 우연기술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III.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지역 D대학교(4년제)와 경남지역의 K대학교(4년제) 남녀 재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최종 24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 54명(22.1%), 여학생이 190명(77.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3명(13.5%), 2학년 55명(22.5%), 3학년 69명(28.3%), 4학년 82명(33.7%), 기타 5명(2.0%)으로 4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15명(47.1%), 자연과학계열 47명(19.3%), 경상계열 21명(8.60%), 공학계열 33명(13.5%), 예체능계열 10명(4.1%), 기타 18명(7.4%)으로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54	22.1
	여	190	77.9
학 년	1학년	33	13.5
	2학년	55	22.5
	3학년	69	28.3
	4학년	82	33.7
	기타	5	2.0
전 공	인문・사회계열	115	47.1
	자연・이공계열	47	19.3
	상경계열	21	8.6
	공학계열	33	13.5
	예체능계열	10	4.1
	기 타	18	7.4

3.4 측정 도구

3.4.1 심리적 독립 척도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 Moore(1987)와 Baik(1997)의 척도를 바탕으로 문정희(201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자기신뢰 6문항, 자율적 의사결정 6문항, 부모와 지지관계 6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정희(2018)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83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4.2 진로준비행동 척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이명숙(2003)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목표달성활동 7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4.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하여 Kim 등(2014)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김보람(2012)이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호기심 5문항, 인내심 5문항, 유연성 5문항, 낙관성 5문항, 위험감수 5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김보람(2012)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8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23.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5 Model 1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독립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44점,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51점, 계획된 우연기술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3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변량 분석의 전제 조건인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측정변인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정규분포의 가정 충족 기준은 왜도 절대값 3 이하, 첨도 절대값 7 또는 10 이하이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1.010~.233, 첨도는 -.073~2.407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변 인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독립	자기신뢰	3.728	0.753	-0.368	0.027
	자율적 의사결정	3.561	0.771	-0.386	0.111
	부모와 지지관계	3.943	0.745	-1.010	1.783
	전 체	3.744	0.505	-0.291	-0.04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3.514	0.693	-0.375	0.711
	도구구비활동	3.489	0.764	-0.320	0.288
	목표달성활동	2.855	0.813	0.233	-0.073
	전 체	3.251	0.675	-0.063	0.588
계획된 우연기술	호기심	3.808	0.697	-0.563	0.960
	유연성	3.714	0.725	-0.664	0.978
	인내심	3.746	0.719	-0.719	0.923
	낙관성	3.835	0.797	-0.713	1.022
	위험감수	3.585	0.765	-0.446	0.383
	전 체	3.738	0.604	-0.611	2.407

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r=.367$, $p<.001$),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r= .519$, $p<.001$),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r=.504, p<.001)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 분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심리적 독립	1		
진로준비행동	.367***	1	
계획된 우연기술	.519***	.504***	1

※ ***p < .001

4.3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3.1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독립 전체 설명력은 R^2=.135로,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13.5%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7.741, p<.001). 이는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신뢰(B=.453, p<.001), 부모와 지지관계(B= .108, p<.05)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의사결정(B=-.104, p<.05)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p)	VIF	R2	F
		B	SE	β				
심리적 독립	(상수)	1.506	.275		5.476***		.293	33.152***
	자기신뢰	.453	.051	.506	8.848***	1.109		
	자율적 의사결정	- .104	.048	- .119	-2.159*	1.033		
	부모와 지지관계	.108	.051	.119	2.118*	1.077		
전체		.491	.080	.367	6.143***	1.000	.135	37.741***

※ 종속변인 : 진로준비행동, *p<.05, ***p<.001

4.3.2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전체 설명력은 R^2=.254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25.4%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2.385, p<.001).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호기심(B=.291, p<.001), 인내심(B=.252, p<.01), 낙관성(B=.145, p<.05)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연성, 위험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VIF	R2	F
		B	SE	β				
계획된 우연 기술	(상수)	1.135	.238		4.761***		.300	20.412***
	호기심	.291	.081	.301	3.595***	2.380		
	유연성	- .061	.063	- .065	- .958	1.572		
	인내심	.252	.083	.268	3.019**	2.683		
	낙관성	.145	.073	.171	1.989*	2.518		
	위험감수	- .075	.080	- .085	- .930	2.808		
전체		.563	.062	.504	9.077***	1.000	.254	82.385***

※ 종속변인 : 진로준비행동, *p<.05, **p<.01, ***p<.001

4.4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검증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885, p<.05).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R^2의 증가량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riangle R^2$=.0121, p<.05).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변 수	B	SE	t	p	95% 신뢰구간 CI	
					LLCI	ULCI
상수항	-1.6782	1.2352	-1.3586	.1755	-4.1114	.7550
심리적 독립	.8830	.3531	2.5004*	.0131	.1873	1.5786
계획된 우연기술	1.1479	.3400	3.3761***	.0009	.4781	1.8176
심리적 독립 × 계획된 우연기술	- .1885	.0937	-2.0124*	.0453	- .3730	- .004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2814		31.3312		.0000	

※ *p < .05, ***p < .001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조절효과 계수는 -.1885이었으며, BC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373, 상한값은 -.004으로 나타났다.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1SD 수준(B=.2923, t=2.964, p<.01) 및 M(B=.1785, t=2.0787, p<.05)의 경우에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획된 우연기술이 +1SD 수준의 경우에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건부효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값이 -1SD 부터 M에 유의미하였으나 +1SD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뜻하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1SD)과 평균 집단(M)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1SD)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기술 특정값(-1SD, 평균값(M), +1SD)에서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단순기울기 검증

조절변수	수준	B	SE	*t*	*p*	BC 95% CI	
						LLCI	ULCI
계획된 우연기술	-1*SD*	.2923	.0986	2.9640**	.0033	.0980	.4865
	M	.1785	.0858	2.0787*	.0387	.0093	.3476
	+1*SD*	.0646	.1068	.6049	.5458	-.1458	.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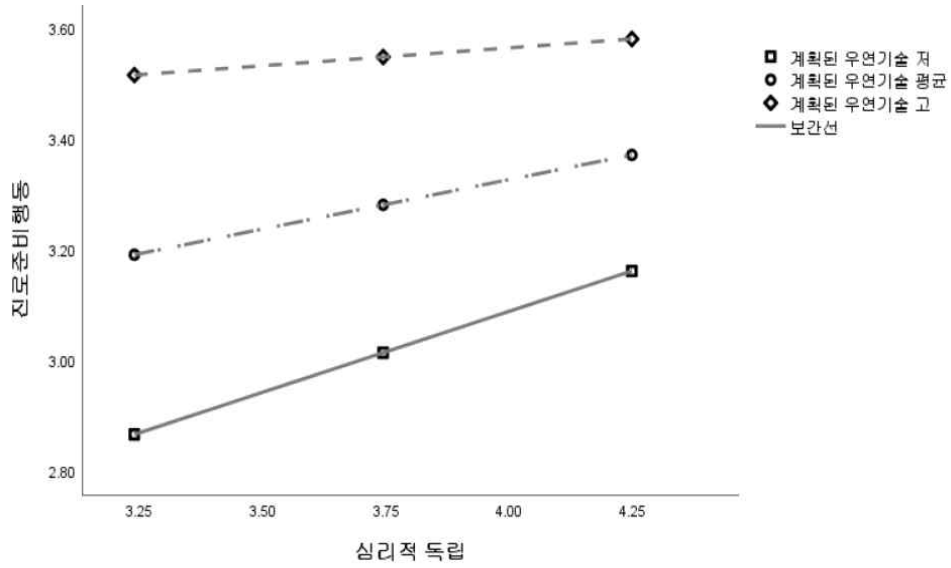
※ *p < .05, **p < .01

계획된 우연기술이 낮은 집단, 평균 집단, 높은 집단의 경우 모두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기울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증가하여도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정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고집단(+1SD), 평균집단(M), 저집단(-1SD)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집단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를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하여 Johnson-Neyma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된 우연기술의 값이 3.7824 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였으나 3.7824를 초과하는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 검증

계획된 우연기술	B	SE	*t*	*p*	LLCI	ULCI
1.0000	.6945	.2632	2.6383	.0089	.1759	1.2130
1.2000	.6568	.2456	2.6743	.0080	.1730	1.1406
1.4000	.6191	.2281	2.7138	.0071	.1697	1.0685
1.6000	.5814	.2109	2.7570	.0063	.1660	.9968
1.8000	.5437	.1939	2.8039	.0055	.1617	.9257
2.0000	.5060	.1773	2.8542	.0047	.1568	.8552
2.2000	.4683	.1611	2.9064	.0040	.1509	.7857
2.4000	.4306	.1456	2.9576	.0034	.1438	.7174
2.6000	.3929	.1309	3.0017	.0030	.1351	.6507
2.8000	.3552	.1174	3.0268	.0027	.1240	.5864
3.0000	.3175	.1054	3.0120	.0029	.1099	.5252
3.2000	.2798	.0957	2.9245	.0038	.0913	.4683
3.4000	.2421	.0889	2.7243	.0069	.0670	.4172
3.6000	.2044	.0857	2.3853	.0178	.0356	.3732
3.7824	.1700	.0863	1.9699	.0500	0	.3401
3.8000	.1667	.0866	1.9262	.0553	-.0038	.3372
4.0000	.1290	.0913	1.4127	.1590	-.0509	.3089
4.2000	.0913	.0995	.9181	.3595	-.1046	.2872
4.4000	.0536	.1102	.4865	.6270	-.1635	.2707
4.6000	.0159	.1229	.1296	.8970	-.2261	.2580
4.8000	-.0218	.1370	-.1590	.8738	-.2916	.2480
5.0000	-.0595	.1520	-.3912	.6960	-.3590	.2400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며 진로준비행동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북지역 D대학교(4년제)와 경남지역의 K대학교(4년제)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72명의 응답을 받아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최종 244부를 최종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23.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5 Model 1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의 결과(박완성, 2002a; 강정은, 2008; 양진희・김봉환, 2008; 임통일, 2014; 임수진, 2015; 이주연 등, 2019; 이현진, 2021)와 일치하여,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성숙한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 책임, 가치관 확립 등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성숙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지지하며(주은지, 2018),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Blustein et al., 1991). 그러나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자율적 의사결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며(안선영・김희진, 2012),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진,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상호 지지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될 때 진로준비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 프로그램, 진로설계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의 결과(차영은 등, 2015; 송영희, 2017; 최주영, 2020; 현명희, 2021)와 일치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기술이며(손은령, 2018),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계획된 우연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긍정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정보 및 기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독립의 영향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다.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미비함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사고와 행동에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게 되며, 이때 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개방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적극적 자세이자 행동 양식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작용한다면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자기 신뢰 수준과 자율성을 갖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및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장면에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준비를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 및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중요한 조절요인임을 이론적·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강조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북・경남에 소재한 2개 대학교로 제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녀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및 전공에 따른 자료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및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 및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Covid-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블루 등이 반영되어 측정값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일반적 상황에서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 바람직성이나 자기방어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측정치가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주요 변수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만으로 횡단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년의 승급에 따라,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고향자・강혜원(2003),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277-293.

권용호(2002), **실업계 고교생의 심리적 독립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계현(2006),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보람(2012), **계획된 진로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

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김수임 ·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김순정(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_____ · 천성문(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 4(1), 147-162.
김정근(2012), "개인 및 환경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61-179.
김춘경 · 이수연 · 최웅용(2006), **청소년 상담**, 서울: 학지사.
김현희(2011), **일반청소년과 교정시설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류진숙(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문정희(2018),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과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완성(2002a),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_____(2002b),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3-123.
박현주(2005),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백성호 · 김현숙(2017),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신념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우연대처기술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133-149.
소연희(2011), "사범대학생의 자기결정욕구,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17-134.
손은령(2009), "진로상담: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_____(2018), **우연과 계획의 조우-진로상담의 새로운 담론**, 서울: 학지사.
송영희(2017),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선영 · 김희진(201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9(4), 75-97.
양은희(2017), **전문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심리사회적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양진희(201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_____ · 김봉환(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위선희(2013), **부모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이기학・송현정・임희경・정윤경(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이동혁・황윤미・정지희(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855-875.
이득연・홍경자(2004), "가족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이주연・민윤희・장성화(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과 진로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3), 21-33.
이향림(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현진(2021),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임수진(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12(3), 349-363.
임통일(2014), **진로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인 가족지지,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정원근(2013),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정은영(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남근・정미예(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조영아・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조한익(2009),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2(3), 65-87.
주은지(2018), "성인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8), 181-201.
차영은・김시내・강재연(2015),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불안,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 탐색", **인간이해**, 36(2), 67-85.
최민슬(2020), **특성화고 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주영(2020),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학습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역기능적 진로신념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허강석(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 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허혜경・김혜수(2015), **청년심리와 교육**, 서울: 학지사.

현명희(202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Baik, J. S.(1997), *Individuation, university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_____.,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48-364.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Kim, B., Jang, S. H., Jung, S. H., Lee, B. H., Puig, A., & Lee, S. M.(2014),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Engagemen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Certain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56-69.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Krumboltz, J. D.(1999), C*areer beliefs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_____(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Mahler, M., Bergman, A., & Pine, F.(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Mitchell, L. K., & Krumboltz, J. D.(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_____, Levin, A. S., & Krumboltz, J. D.(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3.

Moore, W.(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23(2), 298-307.

Scott, D. J., & Church, A. T.(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Snyder, C. R.(2004), "Hope and Depression: A Light in the Dark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3), 347-351.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2, No. 3 - September 202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Nguyen Thi Van Anh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Lee, YunJu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Choi, Woongyoug*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72 male and female students enrolled in all grades (1st-4th grades) D University in Gyeongbuk area and K University in Gyeongnam area, and the final 244 copies of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s were found to be regula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using a specific value selection method to explore the conditional effect of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can increas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with low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the average group.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to increas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with high psychological separation.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re variables that can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is, the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at it revealed that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Daegu University, 201 Daegudae-ro, Jinr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38453, Korea, E-mail: choiwy@daegu.ac.kr; Tel: +82-53-850-6326; Fax: +82-53-850-6329.

studen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s, Moderating Effect.